

< 종합상식 - 2019년 9월 넷째 주 >

● 0% 물가

한국은행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 중후반을 보이다가 지난 9월 -0.4%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소비자 물가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번 년도 1월부터 7월까지 0%를 기록하던 물가는 지난 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찍었다. 물가 상승률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현재,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다. 형법 126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평가도 있다.

- > 피의; 혐의나 의심을 받음
-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 공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림
- > 사문화;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잡 호핑족(job hopping-族)

잡 호핑족은 '폴짝폴짝 여기저기 뛰어 다닌다'라는 의미의 영단어 'Hopping'에서 유래된 용어다. 장기간의 경기 불황과 저성장 속에 주기적인 이직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젊은 직장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녔다.

최근 자신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잡 호핑족'이 늘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경기불황 아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 또는 소득을 지닌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조세 제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 계층에게 부과한다. 부유세 제도는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가 시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다. 부유세 제도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대두되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이익 상실,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우산혁명 (Umbrella Revolution)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발표했다. 발표가 계기가 돼 발발한 시위가 우산혁명이다. 당시 전인대는 친중국계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과반 지지를 얻은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시위로 이어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학생들은 2014년 9월 홍콩 중문대에서 집회를 열고 일주일 간 동맹 휴업을 선언했다. 추가로 중·고등학교 학생단체인 학민사조가 하루 동맹 휴교를 결의하고 시위에 동참했다. 이 때 당국이 정부청사 주변에서 농성하던 학생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고, 시민단체인 「센트럴을 점령하라」가 도심 점거 시위를 개시하면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확산됐다. 홍콩 시위는 한때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서방 언론은 당국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낸 시위대의 행동을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고 명명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에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다. 상한선은 토지비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한다. 최근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안을 꺼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연구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4년 지속하면 서울 집값이 11%p 하락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처럼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끌어내려도 웃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및 유통, 물류 과정에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한다. 제품을 조립, 포장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공장으로 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제조 장비와 물류 시스템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폭넓게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운용되는 공장이며,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적 기반은 사물인터넷의 도움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물리 시스템이다.

● 팩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이란 취재 방법이나 취재 시각 등에 독창성이 없고,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보도에 개성이 없거나 단조로운 저널리즘을 말한다. 보도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신문사마다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취재 시각이나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독창성이 없이 무사안일하게 보도 제작하는 신문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사건을 보는 시각과 취재 방법, 또는 평가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피상적인 취재만으로 기사를 작성해 신문의 질적,신뢰도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한문 - 한자어 + 사자성어 >

物價 (물건 물, 값 가) / 被疑 (이불 피, 의심할 의)

起訴 (일어날 기, 하소연할 소) / 公表 (공변될 공, 걸 표) / 上限 (위 상, 한계 한)

亡牛補牢 (잃을 망, 소 우, 지킬 보, 우리 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

< 영단어 - 토익 Vocabulary >

Prosecutor 'pra:s	소추자, 검찰관	overstep əuvə'step	(도를) 넘다
grille grɪl	(보호·방법용) 창살[안전망]	reprimand 'reprɪmə:nd	질책하다
allege ə'ledʒ	(증거 없이) 혐의를 제기하다[주장하다]	firmly 'fɜ:rm	단호히
corruption kə'rʌpʃn	(특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타락]	backdrop 'bækdrɒp	(무대의) 배경(막)
sprawling 'sprɔ:ɪŋ	제멋대로 뻗어[퍼져] 나가는	rebuff rɪ'bʌf	(호의어린 제안·요청 등에 대한) 퇴짜[묵살]
admission əd'mɪʃn	(승인을 받고) 들어감, 가입, 입장, 입학, 입회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dubious 'dju:biəs	사람이 의심하는, 미심쩍어하는	intensify ɪn'tensɪfaɪ	(정도·강도가) 심해지다[격렬해지다]; 심화시키다, 강화하다
suspicious sə'spɪʃn	(불법적이거나 부정직한 일을 했다는) 혐의[의혹]	on one's behalf	~을 대신하여
deny dɪ'naɪ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다, 부인[부정]하다	chronic 'krɒnɪk	만성적인
investment ɪn'vestmənt	투자	tardiness	느림, 완만함; 지각.
confirmation ,kɑ:nfər'm	확인	sloppy 'slɒpi	엉성한, 대충 하는
protocol 'prɒtəkɒl	외교 의례, 의전	notably 'nəʊtəbli	특히
gaffe gæf	(공식적인 자리·사교 모임에서 범하는) 실수	quote kwout	인용하다
lawmaker 'lɔ:meɪkə	입법자	private equity fund	비공개 기업투자 펀드
controversial ,kɑ:ntreɪvɜ:rʃl	논란이 많은	embezzlement ɪmbɛzlmənt	(위탁금 등의) 도용(盜用), 횡령, 착복
diplomatic diplomatic	외교의	pretense prɪtens	겉치레, 가식(假飾), 가면, 위장, 허위
audit 'ɔ:ɪdt	회계 감사	bribe brab	뇌물